

대한상의 브리프

제100호 2019년 7월 8일



편집자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지난 주 발표됐습니다.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 지원 등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이번 호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www.moe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들여다보기

정부는 7월 3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교역 감소세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어 성장잠재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①경제활력 보강, ②체질 개선, ③포용 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경제전망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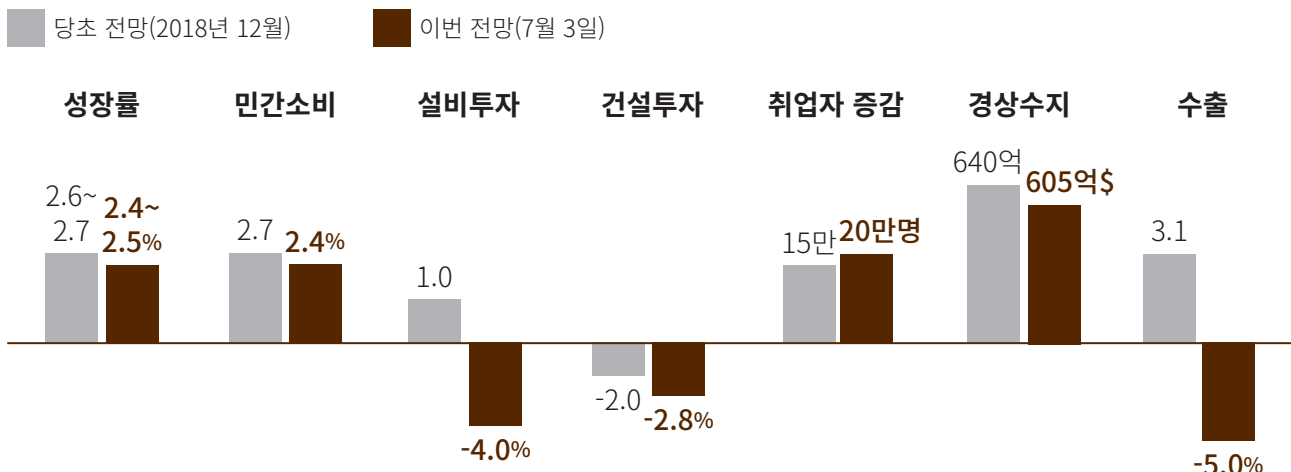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2.7%)보다 소폭 둔화된 2.4~2.5%로 전망했다.**

반면 고용은 일자리 정책의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보다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치(15만명)보다 5만명 늘어난 20만명 증가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세로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764억 달러)보다 감소한 605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수정



대한상의 브리프

경제활력 보강

1 투자 촉진에 총력

정부는 우선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중/소 기업 각각 1/3/7% → 2/5/10%, 1년간 한시 적용)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21년), ▲가속상각제도 확대(중소·중견기업 허용 한도 50% → 75%, 6개월 한시 적용)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정부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원), ▲대산산단 HPC 공장(2.7조원), ▲양재 R&D 캠퍼스(0.5조원) 등 8조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되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과 SOC에 대한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 항만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을 합쳐 총 '10조원+α'의 투자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생활 SOC 사업(사전절차 기간 단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속 집행, ▲광역 교통망 확충(김포도시철도 개통, GTX 사업 신속 진행 등), ▲노후 기반시설 유지 보수 투자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 수출 총력 지원 강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하반기 중 7.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늘리는 등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수출입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수출 상담회 개최 확대 등), ▲분야별 수출 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

편,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R&D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 플랫폼'을 신설하고 지역개발사업(도시 노후 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 외 ▲1000억원 규모 지방펀드 조성(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상생형 지역일자리 밀착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활력 보강' 주요 내용

투자 촉진에 총력

- 6,7조원 규모 추경 신속 집행
-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확대, 10조원 + α 수준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 신산업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 GTX B노선 예타조사 연내 완료 추진

소비 등 내수 활성화

-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
-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 철도 할인 상품 개발 등 국내 관광 활성화, K-POP 행사 정례화 등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수출 활력 제고

- 수출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확대
- 분야별 수출 대책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 금융·보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 플랫폼 신설, 1000억원 규모 지방펀드 조성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해 지원 패키지 집행

대한상의 브리프

경제체질 개선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우선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규제 개선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은 성과 창출 기반을 구축하며,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100건을 조기 창출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수도권 제외)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제한 완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3년), ▲하반기 중 3.2조원 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개시, ▲유망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에 1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신속 추진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6월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에 따라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시작**한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산단 조성, ▲친환경차·선박·공기/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에 대한 선제적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민관 합동 대형 R&D 추진 등),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상 2.5조원 규모 특별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3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서비스업은 **규제 완화 정도를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제 금융 R&D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59%에서 64%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 대상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제체질 개선’ 주요 내용

혁신성장 가속화

-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마련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1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이행
- 기존 8대 선도사업 + 지능형 로봇 등 4개 선도사업 추가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 지원, 모험자본 적극 확충, R&D 인센티브 강화, 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

제조업 비전·전략 신속 추진

-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 대책 시리즈로 마련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병행 추진

포용성 강화

1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일자리 등 서민 소득기반 확충(노인 일자리 80만개 공급, 공익활동 일자리 3만개 추가 지원), ▲실업급여 및 EITC 지원 확대, ▲5대 생계비(교통·교육·의료·주거·통신) 경감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제로페이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규모 확대), ▲사회적경제·공정경제 활성화(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마련 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2 최저임금·주52시간제 보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 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하반기에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 대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집행 추진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

- 1 **10조원 + α 수준 투자 프로젝트 추진**
 -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약 8조원) 등
- 2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 지원**
 - 사례 100건 조기 창출(현 68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3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4대 신산업 추가 발굴**
 -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 추가 발굴 등
- 4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 세제·금융 등 지원제도의 업종간 차별 해소 등
- 5 **수출금융 지원·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 수출금융 규모 확대, 수출활력촉진단 가동 등
- 6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주52시간제 확대 대비**
 - '20년 최저임금 결정,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등
- 7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지속 제고 등
- 8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 연계모델 발굴 등
- 9 **인구정책 TF·중장기 분야별 심층 전략 수립**
 -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생산성 혁신 등 미래대책 마련
- 10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 주택시장, 가계부채, 미중무역분쟁 등 위기 적극대응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7월 8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7	2.6	2.8	2.4	2.5
세계	3.7	3.6	3.3	3.6	3.2	3.4
미국	2.2	2.9	2.3	1.9	2.8	2.3
중국	6.8	6.6	6.3	6.1	6.2	6.0
일본	1.9	0.8	1.0	0.5	0.7	0.6
EU	2.5	1.8	1.3	1.5	1.2	1.4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9.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22	1,131	1,141	1,183	1,176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16	1,017	1,022	1,076	1,088
원/위안	174.4	167.5	166.4	166.4	168.4	169.8	172.1	170.0
원/유로	1,283	1,276	1,299	1,272	1,278	1,282	1,324	1,327
유가(Dubai)	53.8	53.2	69.7	64.5	66.9	70.9	69.3	61.8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9.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3.0	2.5	1.4	-1.9	-0.6	0.7	1.0	-
소매판매	3.9	1.9	4.3	-1.9	2.5	1.4	3.4	-
설비투자	-1.3	14.1	-3.8	-26.9	-15.6	-6.3	-11.5	-
수출	-5.9	15.8	5.4	-11.3	-8.4	-2.1	-9.5	-13.5
수입	-6.9	17.8	11.9	-12.5	-6.6	2.6	-1.9	-11.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